

8-9세기 황해해상무역

최재수*

Maritime Trade of Yellow Sea in 8-9th Century

Choi, Jae-Soo

〈목	차〉
一. 배경	二. 한중일 삼국간에 수행된 황해해상무역

一. 배경

1. 당(唐)

1) 정치제도

초기

‘ 수(隋)나라에 의한 중국의 재통일과 당(唐)왕조의 탄생

‘ 관료제도 및 법령제도의 정비 - 관리등용제도 및 직업관료집단의 형성과 세습

‘ 봉건제도의 정착

* 중국은 당(唐)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통일제국을 형성한 후, 19세기말까지 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淸)으로 이어지는 근대 통일국가를 유지 - 라이샤워 교수

후기

‘ 안사의 난 이후 중앙정부의 전국토 장악력 약화 - 지방에 번진세력 활거

‘ 할거한 지방(地方)번진(藩鎮)세력은 중앙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독립된 지방세력으로 변모

‘ 지방번진은 중앙권력과 대립하고 인근의 번진 상호간에 세력확장경쟁 전개

‘ 중앙정부가 인정한 편제범위내의 군대유지만으로는 이러한 세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어 사병(私兵)을 두게됨

‘ 정규군(正規軍) 외에 막대한 규모의 사병제도의 유지와 인접 번진간의 세력확장 전쟁 등으로 많은 경제력이 필요

‘ 자금 조달을 위하여 농업 외에 상공업을 장려하여 이들로부터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함.

2) 경제 - 농경사회의 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업의 발달

초기

‘ 전제(田制)의 정비 등에 의한 농업사회의 정착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둠

‘ 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공업억제정책 견지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일반국민이 힘든 농업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을 선호)

중후기

- 농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자 이 바탕 위에 상공업이 발달(특히 양잠업(養蠶業)의 발달과 방직업(紡織業)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무역과 관련된 주요 산업 - 직섬업(織織業), 광업(鑛業) : 특히 동전제조 및 제련(製鍊)업, 조선업(造船業), 도자기(陶磁器)공업, 인쇄(印刷) 및 제지업(製紙業) 등

3) 교통로의 정비와 상업의 발달

- 중국대륙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많은 강을 이용한 강운(江運)이 일찍부터 발달(황하문명)
- 수(隋)대에 동서로 흐르는 강운을 상호연결 시키는 대운하(大運河) 완성 - 바둑판과 같은 내륙수로 교통망 완성, 이것이 수당이래 청에 이르기까지 거의 2천여년간 중국이 대륙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되었음
- 수로의 연결이 어려운 지역은 도로를 개설하여 육상교통망 정비
- 정비된 수로와 도로망의 각 요소마다 역관(驛館)을 두어 교통의 편의를 제공(신라관, 신라원은 바로 이런 역관의 일종)
- 발달된 농공업과 잘 정비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
- 주요 교통요충지와 변경지대에 시(市)를 설치하여 관의 관리와 통제하에 상업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변경 시(市)에서의 교역과 조공제도가 결합되어 외국의 문물이 당시 수도 장안과 교류하게 되면서 장안이 세계무역의 중심이 됨(당시 장안은 300여개 변경국가들과 공사무역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교역을 위해 찾아드는 외국상인들을 수용하는 번방제도가 발달(장안 및 광주 등 주요 해상교역항 - 신라방 신라촌도 이 번방과 기본적인

인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4) 무역의 발달

개관

- 왕조창립초로부터 중후기까지 국세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는 중기까지는 중앙집권력이 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역이 성행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무역을 금지하는 것이 상례였음
- 그러나 왕조의 권력이 약화되고, 왕족 및 지배관료층의 부패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치풍조가 만연되게 되면 공무역이 약화되고, 이 틈을 사무역이 비집고 들어감.
- 이러한 경향은 황해를 둘러싼 한중일 삼국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시기적으로도 일치하였음

초기 : 조공제도와 공무역의 발달

- 조공제도의 바탕은 현재와 같은 주권국가간의 공존개념이 아닌 일인 황제(천자 -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을 의미) 하의 분봉(分封)국가의 예속개념에서 출발(중화(中華)사상-중국과 주변국간의 관계는 대등한 국가관계가 아닌 군신(君臣)관계)
- 위와 같은 체제유지의 수단이 주변국이 중화(中華)국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침. 그러면 천자는 이에 대한 답례로서 회사품(廻賜品)을 내림.
- 그러나 주변국들은 중국군사력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이런 조공요구에 고분고분 따르려 하지 아니함.
- 주변국이 이런 조공요구를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하여 조공으로 가지고 오는 물품보다 경제적 가치가 많은 회사품을 교부하여 주변국이 경제적 이익을 좇아 조공하도록 유도
- 조공품과 회사품간의 차익이 공무역의 이익이 됨 : 공무역 규모가 시간경과에 따라 대규모화하고, 공무역에 상인계층이 개입하게 되고, 공무역에 부수되는 사무역이 이루어짐
- 조공제도는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들의 끊임없는 중국대륙으로의 진출기도를 봉쇄하기 위하여, 조공제도를 통하여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조공품을 훨씬 상회하는 회사품을 교부하여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침략의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안보, 군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였음

- ' 조공제도가 국가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특히 강하였던 부분은 주로 중국과 연육(連陸)된 서북지방의 소수민족과의 관계에서 강하였으며, 동북지방은 고구려 및 발해 등의 존립을 당 안보의 직접 위협요소로 보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신라와 당간에는 단순한 군신관계를 전제로 한 조공관계를 넘어선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 ' 그러나 강대한 세력이 없고 해로 등이 험하여 해상으로 중국을 침략할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해를 통한 남방지역과 인도 및 아라비아 지역 등과는 군사안보적 요소보다는 경제적 목적의 무역이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였음

후기 : 번진세력의 발호 및 사치풍조의 만연으로 사무역 발달

- ' 안사의 난 후 번진세력의 할거와 이들의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재정조달책으로 무역을 장려하였으며, 이때의 무역은 조공형식을 빈 공무역이 아닌 사무역 체제로 됨
- ' 후기에 관료와 환관들의 부패가 심화되고 지배계급의 사치풍조가 만연되면서 해외사치품에 대한 궁중 및 지배계급 내에서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무역이 급속하게 발달함.
- ' 번진세력의 할거로 인한 교통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워지고, 중앙권력도 약화되어 조공방식의 공무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 틈을 사무역이 비집고 들어감

당의 대외무역의 특징

- ' 고대로부터 고도로 발달한 조선 및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교역에 있어서는 찾아오는 외국상인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대세이며, 능동적으로 당 상인이 대외 교역을 위하여 외국으로 항해한 기록이 상대

적으로 적음

- ' 이는 당시의 바다와 관련된 직업을 천시하는 사회풍조와 관련이 되는 듯함.
- ' 또 외국에서 당의 고도화된 문물을 찾아 조공사절들이 줄을 이으므로 중국은 앉아서도 필요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데 부족이 없음

2. 신라

1).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후의 해상진출(통일신라 흥성기)

- 통일신라는 강력한 해상국가였다 -
- ' 통일이전의 신라는 해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일본의 조선 및 항해술이 발달하지 아니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함.
- ' 반면, 육상에서는 북에 고구려 서에 백제라는 강적과 대치해 있어 충돌이 끊이지 아니하여 육상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해상방위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
- ' 신라가 해상진출에 적극성을 띤 것은 한강유역을 고구려 및 백제로부터 탈취하여 한강 출해구를 통하여 당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한 후임
- ' 이후 신라는 해상으로 당과 교류하여 나당간에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한반도를 통일한 후,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황해해상교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됨
- ' 선부(船府)의 설치 : 신라는 진평왕(眞平王) 5년(583년)에 중앙관제로 선부(船府)를 설치하였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 의하면 이 선부는 병부(兵府)의 대감(大監)과 제감(弟監)이 담당하였으며 주로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였다. 문무왕(文武王) 18년(678년)에는 선부를 병부로부터 독립시켜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후 경덕왕(景德王) 18년(759년)에는 중앙관제의 폭넓은 개편이 이루어졌는바, 이때 선부는 이제부(利濟府)라고 개칭되었다. 이는 선박이 군사 외교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능에 더하여 부세(賦稅)로 거둔 양곡 등을 운송

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박관련 부서의 기능강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영해(寧海)군사(軍使) 군호(軍號)와 신라의 황해해상권장악(濱田耕策 논문) : 성덕(聖德)왕이 733년(성덕왕 32년)에 당(唐) 현종(玄宗)으로부터 영해군사라는 새로운 군호를 받았는바, 이는 새로 등장한 발해(699년 건국)가 황해를 통하여 중국을 괴롭히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군호를 내리고 신라가 황해의 해상안전을 책임 저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해군사 칭호는 그후 경덕왕(景德王), 선덕(宣德)왕, 헌덕왕(憲德王), 흥덕왕(興德王)으로 계속된다. 이는 적어도 733년부터 100여년간 신라는 황해해상방위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보고의 황해해상무역도 그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당이 해군대장을 파견해줄 것을 신라에 요구 : 이는 신라가 우수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

2) 견당사에 의한 대당외교의 전개

- ' 신라와 당나라간의 관계는 군사동맹관계를 가진 아주 긴밀한 관계
- ' 이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당사 및 그 수행원형식의 대규모 나당간의 교류가 형성됨 (대규모의 공무역 수행)
- ' 당은 신라를 대등한 문명국으로 대우
- ' 견당사에 의한 대당외교의 대부분은 신라가 적극적으로 당을 찾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서 신라의 조선 및 항해술이 발달하였을 것임.

3) 한반도 통일후 신라는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안정 황금기를 구가함.

- ' 신라의 공업이 발달
 - ' 신라의 대당 및 대일무역의 활발한 전개
 - ' 신라지배계급의 사치풍조는 대외교역을 촉진
- ## 4) 신라 하대의 국력 약화와 사무역의 발전(장보고의 활동)
- ' 신라하대에 들어서면서 신라의 중앙통제력 약

화가 급속하게 진행

- ' 지방 토호들이 활거하여 중앙과 독립된 세력 형성
- ' 잦은 민란과 흉년으로 민중들의 해외유출 급증(특히 서남해안지방의 난민들로 해민집단의 형성)
- ' 이 해민집단 중 일부가 당과 일본에 정착하여 신라본국의 해민집단과 연계하여 황해해상교통과 무역에 종사(황해해상무역 지배)

3. 일본

- '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를 통한 중국문물의 수입에 의하여 일본고대 율령(律令)국가 완성
- ' 8세기 중엽이후 율령국가 체제가 동요됨(국고 고갈)
- ' 견당사 파견회수가 줄어 둠(견당사 파견에 따른 비용부담과중 및 항해상의 위험)
- ' 그 대신 신라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성행하고, 이 사무역을 통하여 일본은 필요한 해외문물을 수입함(경사(京師)무역의 대재부(大宰府) 무역으로 전환 : 760년에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짐 (李成市の 책)

二. 한중일 삼국간에 수행된 황해해상무역

1. 무역관리기구

1). 중국 - 해운압신라발해 양변사 :

광주에 설치되었던 시박사(市舶使)와 기본적인 성격은 같으나 시박사가 주로 사무역의 통제와 세금의 징수, 황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의 조달이 주임무임에 반하여 압신라발해양변사는 이에 더하여 신라, 발해, 일본과 내왕하는 사절들을 관리하는 임무까지 짐

2). 신라 - 청해진

설치년도 - 삼국사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828년(흥덕왕 3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청해진의 성격 : 청해진은 당시 당에서 성행하던 번진(藩鎭)의 일종(浦生敬子の 의견)

: 번진의 일종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해진은 신라의 기존 진(鎭)과는 성격이 현저히 다름(다른 진은 연안방어가 목적, 청해진은 한중일 삼국의 무역과 황해의 해상안정이 목적)

3). 일본 - 대재부

2. 무역의 수행자

- ' 당시 한중일 삼국을 연결하는 황해해상무역의 주역은 전적으로 신라인이었음.
- ' 일본의 사서나 당의 사서에 당나라 상인에 관한 기록이 산견(散見)되나 그중 많은 부분이 재당 신라인이 일본에서의 상업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당인행세를 한 것으로 보임
- ' 신라상인은 신라(청해진)외에 당 및 일본에도 진출하여 여기에서 반영구적으로 정주(定住)하면서 상업활동에 종사
- ' 재당신라인은 나당일 삼국간의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연안 및 강운무역에도 종사
- ' 재당신라인은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원 등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었음.
- ' 재당신라인은 명주(明州지금의 寧波)로부터 산둥반도에 이르는 긴 해안에 주로 종사하면서 무역 및 교통업과 이에 부수되는 제업종에 종사하였음.
- ' 재당신라인의 집단거주지역 중 주요한 곳은
 - (1) 산둥반도 일대 : 황해해상항해에서의 가장 중요한 항해 거점
 - (2) 강희일대(초주 및 연수현) : 당시 최대의 국제무역항의 하나였던 양주와 인접하여 황해 해상무역과 중국, 그리고 해상실크로드와 중계무역의 거점으로서 상업중심지

(3) 명주 등 강남일대 : 주로 해상실크 로드와의 중계무역, 당일(唐日) 직항로 항해선박의 발착지, 명주이남으로 가는 장보고 선대의 중간기항지(사서에는 재당신라인의 무역활동 기록은 명주가 끝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천주(泉州) 및 광주(廣州), 그리고 그 이남으로도 갔을 가능성은 있음.

3. 무역수행방식

- ' 고대의 무역은 주로 상인선주에 의한 수제(水際)선 무역이 원칙이었으나, 장보고의 해상무역은 나당일 삼국에 전문상인이 집단 거주하는 정주(定住)무역이며, 나당일 삼국의 상인이 같은 신라인이라는 것이 특징
- ' 나당일 삼국에 정주하는 신라상인간에는 매우 강한 유기적 연대체제가 있었음
 - (1) 정보교환의 원할 - 엔닌 귀국시의 선편 찾기의 예 - 필요한 정보의 수시교환
 - (2) 사신(私信)에 의한 국제 통신이 가능 - 엔닌의 편지에 언급한 축전국 태수의 장보고에 대한 편지 및 엔닌이 여행중 전달받은 일본으로부터의 편지 등
 - (3) 신용거래 : 장보고 사후 궁전마려(宮田麻呂)와의 분쟁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품과 그 대금의 동시 교환이 아닌 신용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듯
 - (4) 일본국내 교역 황해무역과 일본국내무역과의 중계는 궁전마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궁전마려의 반란의 조사과정에서 들어남)
- * 수제선 무역 : 외국선박이 무역차 왔을 때 부두가에 인접된 한정된 구역안에서만 교역을 허용하는 무역제도

